

협회 동정



〈분과별 토의장면〉



〈성균관대학교 시설 견학〉

한 면허자 모임』을 개최하였다.

첫째날, 협회장은 개회사(정중혁 협회상근부회장 대독)를 통해 “협회는 그동안 면허자 모임에서 논의, 제안된 사항을 협회 방사선안전위원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으며 대 정부 정책건의로 제도개선에도 힘써 왔다”고 말하고 “최근 협회 주요 추진사업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정보중앙등록센터 구축·운영’ 및 ‘2007년 세계동위원소대회(ICI) 한국개최’에 대해 설명하고 면허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최호신 방사선안전규제부장이 『방사선안전규제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하였으며, 이어진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시험관리실 박재정님의 『방사선관련 면허제도의 운영과 발전방향』과 협회 장재욱 방사선종사자정보중앙등록센터장의 『방사선종사자정보종합관리시스템(RISystem)』이 각각 발표되었다. 특히, RISystem 발표 직후 동 시스템에 대한 온라인 시연으로 참가자의 이해를 도왔다.

계속된 제2부 주제발표시간에는 ▲ 교육분야(발표자 : 정국현 대학방사선안전관리협의회 회장), ▲

의료분야(발표자 : 박중오 대학핵의학기술학회 방사선안전위원회 위원장), ▲비파괴검사분야(발표자 : 이강업 한국비파괴검사진흥협회 안전위원회 위원) 등 분야별 방사선안전관리 관련조직 및 활동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석식 후에는 5개분과(교육, 연구, 산업, 의료, 비파괴검사)별로 분과모임 활성화 방안과 기타 자유주제를 선정, 2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이 있었다.

행사 둘째날에는 2004년도 방사선안전분야 원자력안전마크를 획득한 성균관대학교 안전관리시설을 견학하였다. 이날 동 시설에 대한 소개를 맡은 방사선안전관리자 이상복씨는 지문인식시스템, 온라인 화상감시시스템 및 자체 개발한 안전관리 온라인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여 참가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번 행사동안에 제안된 의견에 대하여는 과기부 등 관련기관에 이를 전달하여 개선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면허자 모임을 통해 국내 방사선안전업무가 더욱 활성화,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운영위원회 개최



협회 제4차 운영위원회(위원장 채화묵)가 6월 3일(금) 협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6ICI 유치에 따른 6ICI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계획으로서 대회조직 구성 및 운영

의 기본골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대회개최의 주체를 협회로 하되 우선 주요 조직으로 대회장, 대회부회장, 조직위원장 및 사무총장을 두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 RT 특별법에 의한 법인설립인가 추진계획(안) ▲ 원자력안전규제제도 개선 건의(안) ▲ 창립20주년 기념사업 준비현황과 정부재원 보조사업 추진계획 등의 안건이 심의 또는 보고 되었다.

RT 특별법에 의한 법인설립인가 추진계획(안)에서는 그동안 협회가 추진해온 이용진흥법에 의한 법인 설립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재산승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의뢰할 것을 의결하였고, 원자력안전규제제도 개선 건의(안)에서는 그동안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각종의견수렴 등을 통해 도출된 주요사항들을 정리, 종합의견으로 관계기관에 제출할 것을 의결하였다.

상반기 RI/방사선 전문강좌 실시



협회는 6월 22일(수)~24일(금) 3일간에 걸쳐 협회 강의실 및 한양대학교 과학기술관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2005년도 1차 RI/방사선 전문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강좌는 22일 ▲외부피폭에 대한 방사선방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장재권), ▲차폐해석(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홍석), 23일 ▲MCNP 코드(한양대학교



권정완), ▲LSC원리 및 해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용재), 24일 ▲내부피폭 평가방법(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규환), ▲원자력의학원 싸이클로트론 견학(원자력의학원 채중서)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교육일정(2일)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으나, 개설 강좌의 다양화로 인하여 수강생들의 직접적인 실습이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되었다. 앞으로 협회는 이번 전문강좌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문을 토대로 하반기에 실시할 2차 RI/방사선 전문강좌는 1차 강좌와의 연속성을 추구하되, 현행의 다양한 과목 중 수강생들이 꼭 듣고 싶어 하는 강좌를 엄선, 실무

위주의 실습을 보강한 강좌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과 달리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종사자가 필요로 하는 과목만을 선별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일별 교육 수강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유관기관 동정

과학기술부

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 전국 네트워크 구축

- 전국 7개 권역 13개 연구소에 6년간 240억원 지원 -

과학기술부(부총리겸 장관 오명)는 원자력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목적으로 전국 7개 권역 13개 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BAERI : Basic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에 올해부터 6년간 240억원(연간 4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국에 권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이들 연구소는 원자력발전 안전관련 연구분야 5개소, 방사선의 산업적 이용연구 분야 5개소, 원자력의 의학적 이용연구 분야 3개소이다. 이들 연구소들은 원자력 및 방사선과 IT·BT·NT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연구를 전공분야가 다른 연구자들이 모여 공동·협동연구를 통해 추진한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방사선 신호전달 및 텔

로미어(telomere)길이 조절에 의한 장수기전 연구(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길홍 교수)’는 “저선량 방사선은 장수(長壽)와 관련 있다”는 “방사선 호메시스(Radiation hormesis) 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향후 그 연구결과가 기대된다.

동 사업은 2002년부터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5년도, 200억원)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금년 5월, 6개의 신규 연구소를 지정함으로써 비로소 전국적인 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앞으로 ‘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 협의회’를 구성하여 세미나 개최, 연구개발 정보교환, 인력양성 등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IAEA 환경동위원소 측정센터’ 제주대에 유치

- 아태지역 수자원보호·환경오염 방지에 기여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환경동위원소 측정센터가 제주대에 설치된다.

과학기술부는 방사선 기술을 이용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수자원 보호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환경동위원소 측정센터를 IAEA로부터 유치, 7일 제주대에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환경동위원소란 자연에 포함된 안정적인 천연 동위원소를 말하는 것으로, 물질중에서 이들 동위원소의 함량을 측정, 해당 물질의 발생기원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이 센터는 안정 동위원소를 이용, 미래의 수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의 오염기원과 자원분포 등을 측정·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관한 기술을 관련 연구자들에게 교육·훈